

# 아베 '벚꽃 파문' 지지율 하락에 국회 해산 카드

### “총선거 단행 주저 않겠다”

### 야당대표 “내년 2월 선거 대비”

### 집권당 초·재선의원 선거연수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관한 의혹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비 태세에 나서고 있다.

아베 총리는 9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문제에 관해 “국민의 신뢰를 몰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면 해산 총선거를 단행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참의원 선거(2019년 7월)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참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머리에 가득하니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해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과거에 아베 총리는 해산 가능성에 관해 “전혀 머리의 한쪽 구석에도 없다”는 등의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했는데 이날 답변은 결이 다른 셈이다.

아베 총리가 회견에서 내년 4월 예정된 왕실 행사 등을 함께 거론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해산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비쳤다”(교도통신)는 분석 등이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 해산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9일 열린 당 상임간사회에서 내년 정기 국회 소집 직후 또는 초반기에 아베 총리가 해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에다노 대표는 “다음달 20일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고(내년 1월) 31일에 해산할 것인지 아랫(내년) 2월에는 선거라는 생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야당이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준비 태세를 갖추기 전에 해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선거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다.

산케이신문은 중의원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2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자민당이 차기 총선에 대비해 경험이 적은 1·2선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루보 자민당 선대위원장은 10일 자민당 본부에서 선거에 대비한 연설회를 열었다.

자민당은 정치 경력이 짧은 의원들이 소식을 활용해 홍보하도록 하는 등 해산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 선대위의 한 간부는 “총리는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더라도 군사표변(君子豹變, 군자는 허물을 고쳐 올바로 행함)이 아주 빠르고 뚜렷함”이다. 항상 전쟁 국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국제법정 선 수처 로항야 학살 옹호 인권 아치콘 →국제사회 왕따 추락

### 국제사법재판소 피고인석 미안마군 인종청소 등 부인

‘국제적인 인권·민주화 운동의 아이콘’ 노벨평화상 수상자 ‘군사정권 아래 15년간 가택 연금에 당한 정치범’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 따라 라다넷된 수석어들이다. 수처 고문은 그러나 지난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시작한 ‘로항야 집단학살’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가 로항야족이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지난달 11일 미얀마를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미얀마 정부의 대표 대리인으로 나서 전 세계 대다수가 비난해 온 집단학살 범죄를 부인하게 됐다. 특히 대량 학살을 자행한 미안마군을 옹호하는 것은 과거 군부 정권에 의해 갖은 핍박을 받아 온 수처 고문의 인생 역정을 고려할 때 아이러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는 약 2년 전 수천 명이 사망하고 70여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항야

아웅 수지’가 발발한 이후 최악의 유희 참사를 방관하고 침묵했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일부 사실로 확인된 미안마군의 ‘인종청소’ 보도와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결국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하면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양심대사상을 철회하는 등 여러 국가 및 단체가 인권 관련 수상이나 명예시민증 수여 등을 없던 일로 했다.

한때 민주화와 인권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수처 고문의 국제적 위상은 급전직하했다. 특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첫 국제재판에서 수처 고문이 직접 ‘집단 학살’을 옹호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위상 하락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실상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NN은 수처 고문의 ICJ 변론 기사를 다루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아이콘에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으로’라는 제목을 붙였다.

양군에서 활동 중인 정치 평론가 데이빗 매티슨은 AFP 통신에 “수처 고문이 ICJ에서 (국제사회 비판을) 반박하고 옹호의 여지가 없는 이들을 계속해서 방언한다면 공경만 더 커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日 방위비 추경 4조6천억 역대 최대규모 편성 추진

일본 정부는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추경 예산안에 방위비로 약 4천200억엔(약 4조6천110억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방어(BMD) 능력 강화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해 이처럼 추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편성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개량형인 PAC3-MSE로 전환하는 비용을 추경 예산에 반영한다.

예초 2022 회계연도 말까지 PAC3를 개량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추경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신형 주력 수송기 C2의 정비 비용도 예산에 반영한다.

외무성 관련 비용은 추경에 약 1천300억엔(1조4천273억원) 정도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나 공습 등의 위험이 큰 지역에 있는 재외 공관에 방탄차를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인도주의-테러 대책 등에 관한 각국 지원 비용, 유엔 분담금 등을 계상한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 브레이크’ 탑재 차량을 사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신차 기준 10만엔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탄핵안 혐의는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낸시 펠로시(가운데)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추진에 ‘권력남용’ 의회방해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석유 과잉 시대...셰브론 “자산가치 13조 하락”

최근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 하락, 전기 자동차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부의 기후 변화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수익에 타격을 입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스페인의 석유·가스 기업인 쉘은 자산 가치를 50억 달러 하락 조정했으며 영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BP PLC도 올해 10월 자산 가치를 26억 달러 낮췄다.

셰브론은 최근 석유·가스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13조 달러(약 1조9천억 원) 낮추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워스 셰브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최고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한다”며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을 이끈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hydraulic fracturing) 공법 등의 기술은 글로벌 시장을 공급 부족에서 과잉으로 뒤바꿔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 하락, 전기 자동차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부의 기후 변화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수익에 타격을 입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스페인의 석유·가스 기업인 쉘은 자산 가치를 50억 달러 하락 조정했으며 영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BP PLC도 올해 10월 자산 가치를 26억 달러 낮췄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도 수년간 미국 내 보유한 천연가스 자산 가치를 25억 달러가량 하락 조정했다. /연합뉴스

## 쿠팡 CEO “증강현실, 컴퓨터 플랫폼 된다”

### “애플의 최대 공헌은 헬스케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증강현실(AR)이 컴퓨터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쿡 CEO는 증강현실이 “다음 컴퓨터 플랫폼이 된다”며 “최대의 핵심 기술이다. 사람들이 항상 사용한 것이 된다”고 11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쿡 CEO는 오락, 쇼핑, 업무, 교육 등 넓은 분야에 증강현실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는 애플워치에 심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건강관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헬스케어’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다”며 “후에 돌아보면 애플의 인류에 대한 최대 공헌은 헬스케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쿡 CEO는 스마트폰 시장이 최근 둔화

한 것에 대해 “스마트폰이 태어난 지 이제 12년이다. 누구도 속성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며 10년 후 애플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포함한 제품 회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이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나 고용불안과 격차를 확대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긴급성이 큰 것은 교육이다. 미래의 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프로그래밍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미국 내에서 PC 일부 기종을 생산하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 여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쿡 CEO는 또 거대 정보기술(IT)기업이 개인 정보를 인터넷 광고 등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문제는 인터넷 광고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상세한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친구는 누구인지 몰라도 인터넷 광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탐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낮춰드립니다
- 다주택 보유에 가중세 2.4%~4.4%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저리대출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815 해방 대출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평생 어부바 신협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